



직장여성의 육아경험 - 1세 이하 유아를 중심으로 -

이내영¹⁾ · 김영혜¹⁾ · 구미지²⁾ · 김소희³⁾ · 김영미⁴⁾ · 장경오⁵⁾

1) 부산대학교, 2) 부산대학교 병원 중환자실, 3) 동아대학교 간호학과, 4) 부산 복합화력본부, 5) 양산시 보건소

= Abstract =

The Lived Experience of Working Women Raising Children

Lee, Nae-Young¹⁾ · Kim, Young-Hae¹⁾ · Koo, Mi-Jee²⁾
 Kim, So-Hee³⁾ · Kim, Young-Mi⁴⁾ · Chang, Koung-Oh⁵⁾

1) *College of Nursing, Pusan National University*, 2) *Pusan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SIC*, 3) *Department of Nursing, Dong-A University*
 4) *Busan Combined Cycle Power Plants Health Care*, 5) *Yang San Health Care Center*

Purpose: This study was done to describe the essential structure of the lived experience of working women raising children. **Method:** Data were collected from 10 employed women with children who were under 2 years of age. The analysis of the data was done using the phenomenological analytic method suggested by Colaizzi (1978). **Results:** In this study, 6 essential themes were extracted: 'knowing by intuition child-rearing is difficult', 'having guilt-conscious of not being able to perform duties as a mother', 'hard work of maintaining two jobs', 'Lost self', 'realizing that one has become another', 'thirsting for a social support system'. **Conclusion:** With a rapidly increasing number of working women, the significance of this study in the field of nursing is in understanding the child-rearing experience of working women. The findings indicate the need for a systemic and emotional support system for working women raising children.

Key words : Working women, Child Rearing, Life Experiences, Qualitative Research

주요어 : 직장여성, 육아, 경험, 질적연구

교신저자 : 김영혜(E-mail: ungaekim@pusan.ac.kr)

투고일: 2007년 4월 25일 심사완료일: 2007년 7월 20일

• Address reprint requests to : Kim, Young-Hae(Corresponding Author)

College of Nursing, Pusan National University

1-10 Amidong, Seo-Gu, Pusan 602-739, Korea

Tel: 82-51-240-7752 Fax:82-51-248-2689 E-mail:ungaekim@pusan.ac.kr

서 론

연구의 필요성

한국의 여성들에게는 유교사상의 전통으로 자신의 계발이나 발전보다는 가족 구성원에 대한 순종과 봉사가 여성의 미덕으로 강조되어 왔다. 그러나 근대화와 서구화의 급격한 흐름 가운데 여성에 대한 전통적 사회 규범에 많은 변화가 오면서 무엇보다도 여성의 취업이 급증하게 되었다(Kim, 1997).

한국 여성개발원(1996)에 따르면 1975년에서 1996년 사이에 남성의 취업은 77.4%에서 76.5%로 감소한데 반해 같은 기간 여성의 취업은 19.4%에서 48.3%로 증가했다. 이러한 변화는 특히 기존 여성들에게서 두드러져 이들의 취업률은 1980년대 말과 1990년대 초 미혼 여성의 취업률을 앞질렀으며(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1992), 여성의 취업에 대한 태도 또한 '직장과 관계없이 취업해야한다'가 35.4%(Korean National Statistical Office, 2002)에 이르고 있다.

이전에는 소수의 여성들이 직업을 가졌고 결혼 후에는 타의, 자의로 직업에서 물러났었다. 결혼 이후에까지 직장을 가지더라도 아이가 생기면 직장은 바로 포기해야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생계수단을 넘어 직업을 자아실현의 수단으로 생각하게 되면서 여성들 또한 "자신의 일"로서 직업을 중요하게 인식하게 되었다(Jung, 2006).

이제 우리 사회에서 여성의 직업은 당연한 것이고 결혼이후에도 출산 이후에도 직장생활을 계속해야 한다는 것에는 이의가 없다. 그러나 출산 후 양육과 직장생활의 병행은 많은 어려움이 있다. 이전의 가족 제도에서 아이는 그 집안의 대를 이어가므로 조부모와 다른 식구들이 양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지만(An, 1979) 이제 아이의 양육은 그 부모와 사회의 몫이다. 아이의 아버지가 이전 아버지들보다 육아에 참여하는 부분이 커진 것(Jung, 2006)이 사실이지만 여전히 육아는 고스란히 어머니인 여성의 차지이다. 출산과 육아 때문에 직장에서 해고되지는 않지만 그 이후의 문제들은 부부가 책임을 져야 하며 특히 어머니인 여성이 더 많은 부분을 감당해야 한다.

연령에 따른 여성들의 취업률을 보면 20-24세와 40-44세에 경제활동 참가율이 높고, 25-34세의 참가율이 급감하는 M자형 구조(Korean National Statistical Office, 2002)로 25-34세의 여성들이 혼인과 출산에 따른 자녀양육에 대한 부담으로 경제활동 참가율이 낮은 것을 볼 수 있다. 그리고 실제 많은 기혼직장여성들이 직장과 가정생활을 병행하는데 있어서 자녀양육문제를 애로 사항으로 지적하고 있으며(Youn, 2004) 사회경제활동과 가사노동 중 특히 자녀 양육이라는 두 가지 역할 사이에서 심한 갈등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인 것이다(Jung, 2006). 즉 자녀 출산과 양육이 기혼여성의 취업을 중단시키는

요인이 된다.

아이를 하나 낳아 양육하는 것에 비용이 많이 들고, 그 비용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맞벌이를 해야 하고 그로 인해 아이를 양육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 결국 아이를 하나 낳거나 아 주 낳지 않게 된다. 근래에 들어 초고령화 사회, 저 출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는 높지만 실제 왜 출산율이 낮을 수밖에 없는가에 대한 정확한 조사나 간호중재는 시도된 적이 없다. 본 연구는 이 자료를 통해 직장생활을 하는 어머니들의 경험을 이해하고 사회생활과 육아를 도울 수 있는 간호중재 개발의 기초자료 제공하고자 한다.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직장여성인 체험한 육아경험이 무엇인지를 서술하여 의미의 본질을 추구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육아를 하는 직장여성의 경험을 심층적으로 이해하며 이들을 위한 교육 및 지지 프로그램 개발에 반영할 수 있는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질문은 '당신이 체험한 육아경험은 어떤 것인가?'이다.

연구 방법

연구 설계

본 연구 대상자는 퇴직을 가장 많이 고려해보는 출산휴가 3개월을 경험하고, 1세이하의 아이를 가진 부산지역 직장여성이었다. 전화로 본 연구의 목적을 듣고 연구에 참여하기로 동의한 자로 자신의 경험을 충분히 표현하였으며, 심층 면담을 통해 현상에 대한 새로운 범주가 도출되지 않는 포화상태에 이를 때까지 총 10명이 선정되었다.

연구자 준비

자료수집에 앞서 연구자 6인의 질적 연구에 대한 민감도를 높이기 위해 연구주제에 대해 어떤 선입견을 갖고 있는지 서로 반추해 보았으며, 자료수집이 완전해질 때까지 문헌고찰을 하지 않았다. 또한 면담을 시작하기 전에 연구자들이 모여 개방적이고 비구조적인 질문을 정하는 등 연구 방법에 대한 계속적인 토의를 하였다.

연구 참여자에 대한 윤리적 고려

연구 참여자의 윤리적 측면을 보호하기 위해 면담시작 전에 연구의 목적과 방법을 설명하고, 면담내용은 연구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을 것이며, 필요시 어느 때라도 철회할 수 있다는 내용을 참여자에게 설명했다.

자료 수집 방법

자료 수집을 위해 2004년 12월부터 2005년 1월까지 1차적으로 참여자들이 스스로 체험을 서술하도록 하였다. 서술한 자가 보고서를 기초로 심층면담을 통해 2차적으로 자료 수집을 하였다. 참여자와의 면담은 2005년 1월부터 2월까지 2달 동안 이루어졌다. 면담회수는 참여자별로 1-3회 수행되었고, 1회면접시 1-2시간을 소요되었고, 참여자의 동의하에 녹음하였으며 면담직후 연구자에 의해 필사되었다.

자료 분석 방법

현상학적 연구방법은 전체 자료들에서 주제와 범주들을 이끌어내어 전체 현상에 대한 포괄적인 기술이 가능하므로(Shin, Jo, & Yang, 2001), 취업모에 관한 선행연구가 부족하고 그들의 생생한 체험을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현상학적 연구를 수행하였다. 자료 분석은 대상자의 면담내용에서 명확한 의미를 찾아내어 정확하게 진술하는 Colaizzi(1978)의 분석방법이 본 연구의 목적에 부합되므로 이에 근거하여 분석하였다.

연구의 신뢰도, 타당도 확인

본 연구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해 Guba & Lincoln(1989)이 제시한 4가지 항목(사실적 가치, 적용성, 일관성, 중립성)에 근거하였다. 1) 사실적 가치: 참여자 2명에게 자신의 경험과 일치하는 지를 확인하였다. 2) 적용성: 연구결

과가 다른 직장여성에게 본 연구 결과를 제시하여 현상의 본질적 의미를 잘 이해하고 공감하는지 확인하였고 더이상의 새로운 내용이 나오지 않을 때까지 심층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3) 일관성과 중립성: 연구자간의 편견을 최소화하기 위해 연구 전 과정에서 세미나를 통해 반영적 통찰과 개인적 판단중지를 하여 주관성을 배제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연구 결과

직장을 가지고 있으면서 육아를 하는 여성 10명에게 육아경험의 의미를 분석한 결과 3개의 범주, 6개의 주제묶음, 16개의 주제가 확인되었다. 도출된 범주와 주제묶음, 주제와의 관계는 <Table 1>과 같다.

양육 그 자체의 힘들

참여자들은 분만 후 약 3개월간의 휴가를 가지면서 초기에는 이전의 교육정도, 육아 상식과 무관하게 참가자 대부분이 아이 키우는 어려움에 접하게 되었다. 아이 키우는 피로움은 크게 수유와 수면에 관한 것으로, 밤낮이 없는 아이의 수면주기에 따라 아이 젖을 먹이며 잠을 자지 못하는 피로움을 얘기했다.

야간에 수유하는 어려움은 작게는 손목이나 허리가 아픈 것에서부터 심한 경우 잠이 모자라서 분유를 준비하면서 뜨거운 물을 자신의 손에 붓는 경험을 하기도 한다. 참여자들은 수면부족을 매우 견디기 힘들어하고 있었다.

깎 때마다 젖을 먹이거나 안아서 달래거나 한다고 많이 힘들었고 손목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나는 정말 모른다. 젖먹이는게 보통일이 아니라는 거.

<Table 1> The lived child-rearing experience of working women

Categories	Cluster of theme	Theme
Getting exhausted	Child-rearing process itself as difficult problems	Breast feeding is hard Suffering from lack of sleep
	Having guilt-conscious not to perform her duties as mother	Being sorry both of them, her parents and child. Hanging on other's smiles Feel pity for her child
A hedge against reality	Too heavy role burden	Coming into conflict with a person child caring Running a home as a battlefield A feeling of danger Being dead on one's feet for living two lives
	Recovering the lost self	Anxiety for reinstatement Want to escape bids from
Adaptation and growth	Realized the becoming of mother	Be immersed in immerse herself in while her is on her child together Feeling the becoming of mother Thanks to her parents
	Thirsting for social support	Remained dissatisfied with her husband Looking over help

어쩔 때는 잠결에 내 손에 뜨거운 물을 부을 때도 있고 잠 때문에 엄청 고생했지. 잠을 자도 깊이 못자고 선잠을 자는 거라.

밤에 애기가 안자고 놀려고 하니까 나는 잠이 와서 죽을 것 같은데 그러면 정말 환장할거 같다.

특히 요즘은 모유수유의 이점이 강조되기 시작하면서 직장을 다니는 경우라도 최소한 분만휴가 3달 동안이라도 수유하려는 사람들이 많다. 이들의 경우 직장복귀를 대비해 미리 모유를 비축하기 위해 추가로 유축을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출산 직후에는 기계식 유축기를 사용하여 유축 할 수 없고 직접 손을 사용해서 유축해야 하므로 직장여성이 모유수유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더 많은 어려움이 있으나, 참가자 중 모유수유를 하려는 대상자들은 기꺼이 번거롭고 힘든 점들을 감수했다.

그 한달 동안에 손목 다나갔다. 젖짜고 한다고..... 손목이 시큰시끈하고 관절도 안 좋아지고..... 손가락 관절이 어쩔 때는 내 마음대로 안 움직여지고 푹 소리가나고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미안함

직장생활에 복귀하면서 아이를 봐주시는 어른들에게는 육아를 맡기는 것과 자신을 키워주시느라 고생했고 이제는 부모님 자신의 인생을 즐기셔야 하는데 다시 손자녀의 양육으로 발목이 묶이게 한다는 데에 대해 죄책감을 느꼈다. 또 아이를 직접 키우지 못하는 것이 안타깝고, 자신이 아이를 키우고 싶은 마음에 괴로웠다. 즉 부모님(참가자들이 직장에 가있는 경우 대부분 부모님이 아이를 맡아주심), 아이, 자기 자신 세 사람 모두에 대해 죄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참가자들은 전업주부로서 엄마 역할을 못해서 자신이 엄마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여기며 어머니로서의 역할에 스스로 위축되는 모습을 보여주시기도 했다.

우선은 시부모님한테 미안하지. 첫째는 놀이방가고 나는 그날 이브닝이면 오전에 피곤하고 하면 그냥 자는 거라. 자다가 바로 출근하면 **이 얼굴도 못보고 갈 때도 있거든. 그러니까 애한테도 미안하고, 한번이라도 얼굴 봐주고 가야 되는데 못 봐주고 가니까 피곤하니까 어쩔 수 없고

애한테도 미안하지만 주변사람들한테도 미안한거라 애 아빠도 떨어져 있고 그래서 애 아빠도 힘들어하고..... 외할머니, 할아버지도 힘들고

난 애한테 참 해준 게 없구나..... 넣어준거 밖에는 없구나. 할머니가 다 봐주고.....

한편으로는 부모님한테 너무 미안하고

나는 엄마가 될 수 있는 자격이 되는지. 그게 제일 의심스

럽데

대상자 모두가 분만 휴가 이후 직장에 복귀했고, 근무시간 동안의 육아는 친정 부모님 혹은 시부모님이 맡고 있었다. 특히 시부모님이 육아를 맡아주시는 경우, 육아를 해주시는 것에 대해 분명하게 불만을 나타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참가자들은 시어머니의 기분이 나쁘지 않으신지 심하게 눈치를 보았다. 아이는 남편의 아이이기도 하지만, 육아에서만은 자신이 전담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해서 웬지 떳떳하지 못해 했다. 직장생활을 하고 사회활동을 하면서 남편과 동등한 경제적 능력을 가지는 것(Youn, 2004)이 당당하고 자랑스럽지만은 않았다. 직장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육아를 맡아주는) 데에 대해 감사한 마음에도 불편하고 조심스러운 마음까지 함께 가지고 있었다. 한 참여자는 퇴근시간 쯤이면 어머니가 힘들어하시고 기분이 안 좋을까봐 조마조마 하고, 근무시간 중에는 제시간에 퇴근하기 위해 화장실도 가지 못했으며 화장실에 자주 갈까봐 물을 마시지 않는다고도 했다. 또 특이한 점은 직장동료들의 눈치도 본다는 것이다. 직장에서 아이가 걱정되고 보고 싶어 전화를 해보고 싶지만 자신의 일에 소홀하거나 전문적이지 못한 사람으로 보일까봐 주변 사람들을 의식하게 되어 전화한통도 편히 하지 못했다.

몸이 안 좋고 하니까..... 시어머니도 힘들잖아. 그러면 얼굴에 표시가 나는 거라. 저녁에 퇴근해서 가면 딱 알잖아. 그러면 미안하고 눈치 보이고 그러니까 저녁에 퇴근시간이 되면 마음이 급해지는 거라. 빨리 가야 되는데. 빨리 가서 애 봐야 되는데.....

잘 있는지 걱정되기도 해서 전화를 하기도 하는데, 내가 하는 일에는 전혀 영향을 안주는데도 그래도 전화할 때 주변 사람들 눈치가 보이는 그런 게 있죠

육아를 다른 사람에게 맡기기 때문에, 아이를 자신이 직접 키운다면 좀더 많은 것을 해주고 자신의 소신대로 할 수 있을 텐데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해 안타까워했다. 아기가 자라는 시기 시기마다 많은 육아정보를 접하게 되고 아이를 낳기전 이렇게 아이를 키워 보겠다던 꿈이 많았지만, 실제로 자신의 아이를 키우면서는 아이에게 해줄 수 없었다. 육아를 맡아주시는 분의 방식이 맘에 안 들어도 안타까울 뿐 어쩔 수 없다. 모든 시간을 엄마 역할에 할애하지 못하는 것, 할머니라 안심 이 되기는 해도 부모만큼은 해주지 못할 것이라 안타깝다. 그렇다고 자신이 직접 아이를 키운다고 해도 할머니만큼 할 자신은 없으나 그래도 아쉬워했다.

안타까운 건 엄마 하는 육아방식이 맘에 안 들 때예요 그럴 때 안타깝죠

부모가 애정을 가지고 하는 그런 것들..... 할머니든 사람

을 쓰든 부모만큼 내 몸 희생하면서 그렇게 해주기 힘들 거 같아.

제가 집에 있으면 애를 막 시켜가지고 애를 진짜 푹푹하게 만들 자신이 있는데 그걸 못하는 게 진짜로 안타깝네요

고달픈 이중생활

육아를 맡긴 사람이 시부모님이든 친정 부모님이든 아이를 맡아주는 것이 감사하기 때문에, 간혹 섭섭하거나 부당한 대접을 받는다고 생각되어도, 표현하지 못하고 참는 것으로 일관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아이를 맡기기 이전에는 아무 일도 아닌던 사건들이 “내 아이”와 관련되면서부터는 사소한 부분에서도 섭섭함을 경험하기 시작했다. 모든 상황들을 이해하면서도 아이가 약간이라도 소홀히 대해지면 눈물이 나고 우리 애를 봐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내색도 할 수 없었다.

시부모님이 봐주시니까..... 사실 섭섭한 게 있어도 어떻게 말하겠노 그냥 참아야지.

일단은 맘에 안 들어도 엄마 하는 건 무조건 따르죠 그냥 가만 내버려두는 편이죠

그전까지 그런 일이 없었는데, 시댁일도 내가 이해하면 되겠거니. 이런 생각 참 많이 했는데 애가 있으면서부터 갈등이 좀 시작되는 거 같더라.

이해하면서도 막상 겪으면 눈물나지. 시부모님이라서 말도 못하고. 그런 속상한 일 생각하니까 또 눈물날려고 한다. 아주 사소한 것에 마음 상하고 그렇지만 우리 애 봐 주고 계시니까 내색을 못하지

분만 휴가 동안은 육아가 24시간의 전부에 가까운 시간을 차지한다. 이 육아경험은 대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혼자서 직접 아이를 직접 돌보게 되므로 육체적으로 피곤하다. 참여자들은 아이를 돌보는 것 외에는 다른 활동을 전혀 할 수가 없어, 집안 살림은 전쟁터가 된다고 하였다. 아기가 토한 젖이 묻은 옷을 입은 아내를 남편은 야만인 보듯 옆에 오려고 하지도 않기도 했으며, 참여자들은 더 이상은 여자가 아닌 것같이 느끼고 이제는 단순히 아이를 양육하기만 하는 ‘젓병’이라 잠깐이지만 죽고 싶다는 극단적인 생각을 하기도 했다. 그리고 분만 휴가 이후 다시 직장생활이 시작되었을 때, 아이가 자신을 찾지 않고 할머니를 따라 가려고 하자 아이가 자신을 거부한다고 느꼈으며 또 자신이 부모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고 느껴졌다. 아이는 자신보다 양육을 맡아주시는 분에게 더 애착을 가지고 스스로는 자신을 여자로서 제대로 돌보지도 못하고, 여자로서 엄마로서 점점 위축되며 위기감을 느꼈다.

애기 낳고 나서 너무 힘들고 피곤해서 제대로 못 꾸미고.. '나라는 사람은 없어지고 큰 '젓병'이 된 거 같은 기분이 들고

해서, 여자이기를 포기해야 하나 하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죽고 싶은 생각도 하고

집안일을 거의 못하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족이 인간다운 생활을 못하는 거지.

애가 나보다 할머니 더 좋아하고 할머니 찾고 할 때는 참 섭섭하데 내가 부모인데 부모역할을 제대로 하는지 이제 보니까 할머니를 엄마로 아는 거 같아.

그리고 실제 직장생활에 복귀했을 때. 이런 위기감들은 현실이 되어, 항상 피곤하게 느꼈으며 또한 직장생활과 육아 모두 충족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느껴졌다. 둘째 아이는 가지고 싶은 생각이 없어졌으며, 심지어 아이 몸에 해가 되지 않는다면 젖을 먹여서 잠만 계속 재우고 싶기조차 했다. 낮의 직장생활로 밤에 자주 깨어 아이를 돌보기가 힘들었다. 낮 동안 잠시 육아에서 벗어날 수 있었지만 아이의 엄마로서 직장에서의 업무가 끝나면 쉴 새 없이 육아가 이어져서 육체의 피곤함은 계속되었다. 육아가 퇴근 후로 한정되어 있기는 하지만 직장생활 후 휴식이 없기 때문에 참여자들의 피로는 24시간 지속되었다고 할 수 있다.

너무 피곤하고 힘들 때는. 몸에는 아무 이상 없으면서 한 2-3시간 아이를 꼭 재울 수 있는 수면제가 있으면 먹고 싶을 때도 많았다.

난 둘째 가지고 싶은 생각 없다. 한명 데리고 자는 것도 너무 힘들더라. 나한테는 밤에 서너 번씩 일어나서 우유 달라고 하면. 뽀뽀 울고 하면. 너무 힘들어서.

병원일 직장생활하고 그담에 애기 보는데 몸이 피곤하니까 아기를 봐도 피곤하고 직장생활을 하는데도 늘 피곤한 상태에 있으니까 그 모든 걸 어느 것도 충족을 하지 못하니까..

일단은 쉴 수 있는 시간이 없지. 직장생활을 하고 집에 오면 애기를 봐야 하니까 몸이 굉장히 힘들지. 계속 피곤한 상태에서 있는 거지. 잠을 충분히 잔적이 거의 없지.

휴일에는 하루종일 애기 보면 피곤하니까 애기가 웅얼이를 하면서 막 놀아달라고 하는데 내가 잠이 오니까 얼른 재워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잃어버린 나

참여자들이 복직하기 전 분만휴가 동안 갖고 있던 직장생활, 사회생활에 대한 위기감은 분만휴가를 마치고 직장으로 돌아왔을 때, 계속 일을 해왔던 동료들과 이질감을 느끼면서 업무를 제대로 해내지 못할까 하는 걱정으로 구체화된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직장을 비운동반 바뀐 것들에 익숙해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였고, 이전 만큼 체력이 좋지 않은 것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 노력했다.

내가 나가서 과연 다시 잘 할 수 있을까..... 그런 느낌
 직장 나가서 부딪히면서 적응 못하겠다. 왜 이리 많이 바뀌
 었노? 남들은 다 알고 있는데 나만 모르고 있고..... 6개월
 동안..... '어머 그랬어요' 그런거 억수로 많은 거라.

참여자들은 학교를 졸업한 이후부터 줄곧 직장생활로 계속
 적인 사회생활을 해왔던 터라 분만휴가 동안 분만과 육아는
 사회적 기회 또는 발전의 기회의 박탈로 느껴지기도 했다. 집
 에 있으면 도태되지 않을까, 명칭해지지는 않을까 걱정이 앞
 서고 분만 휴가동안을 사회적 관계가 차단된다고 느껴 육아
 에서 탈출하고 싶었다. 또한 직장생활이 힘들지언정 육아의
 스트레스만큼 힘들지는 않다고 느꼈다. 이전에는 직장까지 버
 스를 타고 가는 시간이 단순한 이동 시간이었지만 이제는 그
 시간마저도 자유시간이며, 집을 벗어나 육아에서 해방되는 순
 간으로 마음이 설레었다.

애기 생활에 집중하다 보니까 참 힘들더라고 나가고 싶었
 어. 직장에

막상 직장 나가서 받는 스트레스보다 집에 있는 스트레스
 가 더 많았던 것 같아.

직장 다녀서 힘든 것도 있지만 그동안에 애들한테서 해방
 이 되는 순간이기도 하거든. 나가서 같이 버스를 타고 가는
 그 순간도 직장을 가기위해 교통수단으로 힘들게 타고 가는
 게 아니라 타고 있으면 그 순간은 내 자유시간인거라.

직장생활도 내 나름대로 내 자유시간이거든 설레는거라. 집
 을 벗어난다는 사실이.

병원 나오고 나서는 애기 안 볼 때는 일하는 게 힘들긴 해
 도 그래도 내 생각이나 모든 게 몸이 자유롭잖아. 자유로와요

학교에 나가면 일단 해방이 되는 거니까 해방감이랄까 그
 런 걸 느끼기도 하고 편하더라고요

부모자리를 깨달아감

참여자들은 육아는 다른 사람에게 맡겨 놓고 자신은 직장
 에서 일을 하면서, 직접 아이를 키우지 못하는데 대해 큰 부
 담감을 느꼈다. 2가지 일(직장, 육아)을 함께 해나가면서 퇴근
 후에는 육아에 각별한 정성을 쏟게 되었다. 낮 시간 함께 있
 어주지 못한 것을 퇴근 후 짧은 시간동안 보상하기 위해 혼
 신의 힘을 쏟게 되었다.

낮에 애기를 못 봐주니까 밤에 집에 가서 다 보상을 해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들대요 내가 어머니까 못하더라도 좀 더
 해줘야 할 것 같은 거예요

그만큼 시간을 할애를 못하는 대신에 애한테 짧은 시간이
 지만 더 잘해주려고 노력하고.....

또 참여자들은 생소한 엄마라는 위치를 경험하고 조금씩
 주변의 인정을 받아가면서 자신이 한 아이의 엄마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고 힘들어도 자신이 아이를 책임지려고 노력하게
 된다고 한다. 정을 주며 아이를 돌보면서 모성 본능을 경험하
 게 되고, 아이와 함께 울고 자면서 엄마라는 것을 더 확실히
 경험하였다

엄마라는 느낌이 참 생소했다. 엄마가 됐다는 느낌은 처음
 에 안 와 닿더니, 애가 크면 클수록 조금씩 조금씩 주변에서
 다른 사람들이 '아이고 이제 애기엄마 됐네'라는 이런 말, 그
 런 말 들으면서 많이 인식하게 되는 거 같다.

정을 주면서 자꾸, 그리고 손을 타니까, 자꾸 쓰다듬어주고
 기저귀도 채워주고 우유주고 이러면서 모성 본능 같은 게 생
 기는 거 같더라.

서로 울면서, 애기도 울고, 나도 울고, 애기 자고 나도 자
 고. 보채고 이런 과정 속에서 엄마가 된다는 느낌이 들데.

3개월 동안 힘들면서, 울면서, '이 애가 내 아이가 되는구
 나라는 생각..... 내가 낳았으니까 내가 책임져야 되니까

출산과 아이 양육으로 힘들과 기쁨, 그리고 부모가 되어 가
 면서, 이전과 다른 입장(부모)에서 보다 넓은 시각을 갖게 되
 었으며, 아이를 낳기 전과는 달리 자신의 부모에 대해 좀더
 공감적이고 안쓰러운 마음을 갖게 되었다. 자신의 부모도 나
 이 들고 건강이 이전만큼 좋지 못한 것이 이제는 마음이 아
 프고, 이전과 다른 부모에 대한 고마운 마음을 새삼 느끼게
 되었다.

일단은 친정엄마가 애를 보시는데 친정엄마도 인제 몸이
 건강하신 건 아니니깐 엄마가 제일 안쓰럽지.....

엄마가 정말 고맙다. 특히 내가 애 낳고 나서보니까. 엄마
 가 너무너무 고마운 거라.

사회적 지지를 갈망함

출산 이전에는 육아에 대한 부담 없이 남편과 함께 직장생
 활을 하면서 잘 지내 왔던 터라 육아를 시작하면 육아에 대
 한 남편의 무신경함에 갈등을 경험하기 시작했다. 일단 출근
 준비하고 집을 나서면 육아에 대한 모든 것에서 해방되고 퇴
 근 후에는 잠시 육아를 도와주고는 자기 일에 몰두하고, 출근
 을 해야 된다며 육아를 전적으로 맡기는 남편에 대해 불만을
 쌓아가고 있었다.

애 낳기 전까지는 서로한테 화낼 일이 거의 없었거든 애기
 낳고 나서 신랑한테 느끼는 불만이, '왜 저렇게 생각이 없노?'
 이런 자질구레한 것들이..... 그런 부분에서 황당하고 짜증나
 기 시작하데.

애 아빠한테 섭섭한 게 많았지. 남편은 아침 6시에 출근을 해. 그러면 준비하고 나가면 끝이야.

내 몸 힘들고 내 맘 이해 못해주고 막 그러면 억수로 많이 서운한거라. 남편한테 정말 서운한거라. 한 30분 봐주고 자기는 들어가서 자기 일하고

우리 신랑이 악기를 하는데 계속 집에서 악기만 부는 게, 자기는 연습을 해야 되니까 하는데 그게 싫더라고요

신랑이 자기는 내일 출근해야 되니까 일찍 자야 된다고 너는 아니니깐 니가 얘기 좀 봐라 그렇게 말을 하는데. 맞는 말인데도 아주 기분이 나쁘면서.....자기가 얘기 보고 내가 출근하면 안 될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또한 참여자들은 직장생활을 하는 동안 아이를 맡아줄 마땅한 사람이 없어 분만휴가이후 복직하는 것이 매우 부담스러웠다. 당장 아이를 주간 보육시설에 맡기는 수밖에 없는데 특히 아이가 어린 경우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것이 힘들었다. 복직하기 위해 아이를 맡기는 비용이 경제적으로 부담스럽거나, 사직을 하고 육아에만 전념하는 경우 수입의 감소로 인해 가정생활의 유지가 어려운 경우도 발생했다.

애기랑 떨어져 있는 시간 내가 직장에 근무하는 시간동안만 누가 애기를 봐준다면 좋겠다. 그러면 정말 직장 그만 댈야겠다는 마음도 안들던데.

놀이방 갈 수 있을 때 까지만 봐주는 사람이 있으면 좋는데 경제적으로도 많이 부담스럽고 한명 벌어서 애기 키우기는 너무 힘들다. 계산이 안나온다.

논 의

본 연구에서는 직장여성들의 육아경험에 대한 6가지 주제에 대해 심층적인 이해를 도모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 대상자들은 출산이후 분만휴가 동안에는 아이를 수유하고, 불규칙적인 아이의 수면에 따라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는 것 등으로 인해 육체적으로 가장 많이 힘들어했다. 모유수유를 한 참여자 중에서는 직장복귀이후에는 모유수유가 안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분만휴가동안에는 손으로 짜서 먹이더라도 모유수유를 했다고 하는 사람도 있었다. 아기가 잠을 안자서 잠이 와서 “죽을 것” 같았고 “환장을 할 것” 같았다는 대상자도 있었다. 출산 후 육아의 어려움은 육아를 처음 시작하는 부모들에게는 일반적인 것으로 전업주부, 취업여성 모두가 함께 경험하며 시간이 흐르면서 이런 어려움이 줄어들게 된다. 그러나 직장여성의 경우에는 직장 복귀이후 낮 동안의 육아를 다른 사람에게 맡기게 되므로 분만휴가동안의 육아는 3개월 동안의 일시적인 것이라 할 수 있다. 이후의 기간에는 육아를 종일 전담하지 못해 오히려 한정된 기간동안 더욱 최

선을 다하려는 마음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분만 휴가 기간이 한정되어 있어 육아에 적응하기 보다는 육아로 인한 육체적 어려움을 더 크게 경험하면서 분만휴가를 보내는 것으로 보인다.

자신이 직장에서 일하는 동안 육아를 다른 사람이 맡아주는 것에 대해 직장여성들은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해 미안한 마음이 든다고 한다. 즉, 아이와 어른 모두에게 미안하고, 주변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안타까움에 휩싸이게 됨을 알 수 있었다. 직장여성의 취업이유를 살펴볼 때,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기 때문”이 58.1%, “사회적 인정, 자아실현을 위해서”가 21.5%, “내생활의 일부이므로”가 16.8%, “생계비의 책임”이 2.3%로(Lee & Kang, 2002) 60%정도가 경제적 여건 때문에 취업을 하고 있다. 본 연구 참여자들 역시 대졸이상의 학력을 지닌 전문직 여성들로 남편과 동등하거나 이상의 사회적 지위와 월급을 받고 있어서 남편과의 맞벌이에는 단순한 자아실현과 함께 경제적인 이유가 포함되어 있다. 직장 여성들 스스로가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한다고 느끼는 것은 직장생활에 대한 가치를 절하하려는 경향으로 분석된다. 남편의 직장생활만이 생계를 유지하는 것으로 보고 아내의 직장생활이 가정에 대한 기여를 축소해서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어져야 할 것이다.

직장 복귀 후 직장여성들이 가장 힘들다고 느끼는 것이 바로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의 병행이다(Jung, 2006). 자신이 직접 아이를 돌보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육아를 맡기는 경우 사소한 사건들에서도 육아를 맡긴 사람이 친족관계이든 아니든 갈등을 겪어내게 된다고 호소한다. 또한 아이가 생기기 이전에는 직장생활을 하면서도 그러저럭 집안 살림을 꾸려나갔어도 이제는 퇴근 후 아이의 육아까지 맡아야 하기 때문에 전에 해왔던 집안 살림은 물론 아이의 육아까지 감당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아이를 출산한 후 직장여성들은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아내이자 여성으로서, 한 아이의 어머니로서 위기감을 느꼈을 정도이다. 직장여성들은 직장생활과 육아를 잠시의 쉬는 시간도 없이 이어가면서 녹초가 되어버린다고 말하고 있다. 직장 다니고 아이를 맡겨둔 시택에 가서 아이를 집으로 데려오면서 세 집의 살림을 해야 했고, 직장 일과 아이를 보는 일로 늘 피곤한 상태로 계속 있게 된다고 하였다.

취업여성이 당면하는 문제는 노동시장에서 받는 차별과 가정에서의 가사노동, 자녀양육 등에 관한 과중부담 두 가지로 나누어지게 된다. 가정에서 여성들이 떠맡게 되는 육아문제 또한 여성의 직업 활동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자녀양육에 대한 부담으로 경제활동 참가율이 낮아지고 있다(Park, 1997). Cho(1996)에 의하면 실제 기혼직장여성들의 많은 응답자수가 직장과 가정생활을 병행하는데 있어서 자녀양육문제를 애로사

향으로 지적했다. 사회경제활동과 가사노동(특히 자녀양육) 두 가지 역할사이에서 심한 갈등을 겪고 있는 것이 여전한 현실이다. 즉 자녀출산과 양육은 기혼여성의 취업을 중단하게 하거나, 중단시키지 않더라도 가정과 직장이라는 이중 역할로 부담이 된다.

한편 직장 여성들은 분만휴가부터 복직 후 적응기간 내내 자아실현의 욕구를 느끼고 있었다. 복직 전 분만휴가 동안에는 복직에 대한 불안감을 갖고 있었다. 직장동료들보다 뒤늦게 새로운 기술을 익혀야 하는 것, 육아를 맡기는 비용, 체력 등으로 부담감을 느낀다. 직장여성들은 분만휴가동안 직장 생활에서 동료들에 비해 뒤지게 되고, 복직에 대한 부담감은 분만휴가동안의 육아의 어려움과 더해져서 오히려 직장생활에서 느끼는 해방감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여성은 고학력화로 종래의 결혼, 육아와 같은 가정 중심의 역할이외에도 가능성이 많아지고 선택의 범위가 넓어졌다. 이로 인해 출산 후에도 여성들이 어머니로서의 자아 뿐 아니라 개인으로 자아를 인식하는 경향이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 직장여성들이 겪고 있는 다양한 부담감을 감소시켜 이들의 자아실현을 돕기 위한 다각적인 전략이 필요하다고 본다. 즉, 분만휴가 이후에 복직에 적응할 수 있는 적응 기간과 이에 따른 교육을 유연성 있게 운영하거나, 분만 후 복직한 선배엄마들의 경험담을 듣는 시간을 마련한다거나 하는 복직관련 상담을 위한 상설 창구를 만든다든가 하는 구체적인 도움이 큰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직장여성들은 분만 휴가동안 직접 육아 경험을 통해 점차로 부모가 되어 감을 서서히 느끼게 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본 연구 참여자들도 하루 종일같이 하지는 못하지만 함께 있는 동안 아이에게 혼신의 힘을 다하려하고 엄마가 되어 감을 느끼고 자신의 부모에게 고마움을 느끼게 된다고 한다. 이들의 시행착오를 줄이면서 부모가 됨을 깨달을 수 있는 방법을 익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직장 여성들은 또한 자신의 직장 생활이 장기적으로는 자신의 아이가 자랑스러워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어 직장생활을 지속해나가는 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이들의 생각이 구체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격려해주는 것도 여성의 사회진출과 출산을 격려하는 바람직한 부분이 될 것이다.

대부분의 참여자들의 경우 친가 또는 시가에서 직접 육아를 맡고 있었다. 가족주의적인 우리 문화에서 친정어머니와 시어머니의 도움은 가정에서의 여성의 부채를 자연스럽게 만회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으로, 직장여성의 양육문제는 친정 부모와 시부모의 도움으로 해결되는 부분이 크다. 2000년 현재 취업모의 0-5세 미만 아동은 1,094,000명으로 이중 가정에 서 양육이 가능한 아동을 제외한 실제 보육을 필요로 하는

아동은 1,090,000명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실제 2000년 9월말 19,266개소의 보육시설에서 684,361명의 아동만이 보육(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Report, 2000)을 받고 있어, 직장여성의 육아문제는 보육시설에 의존하기보다는 인적 지원망에 의한 개인적 차원에서 해결되고 있다.

육아에 대한 사회적 지지가 직장여성들의 육아와 출산에는 큰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기혼여성의 취업이 증가함에 따라, 자녀 양육은 어머니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 모두의 문제가 되어가고 있다. 유아기의 자녀를 둔 가정에서, 아내의 취업은 아내 자신뿐만 아니라 파트너인 남편에게도 물리적 심리적인 영향을 미친다(Lee & Mutochasi, 2001). 육아스트레스는 남편과 아내의 개인적 문제임과 동시에 부부 상호간에 영향을 미친다(Crnicek & Greenberg, 1990). 각 부부마다 약간씩의 차이는 있지만, 남편들이 육아에 능동적으로 역할을 찾아가면서 참여하지 않는 것이 남편에 대한 불만을 쌓아가게 하는 원인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맞벌이 부부의 아버지가 전업주부인 부부의 아버지보다 육아스트레스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Lee & Mutochasi, 2002). 출산 이전부터 아버지 역할을 익힐 수 있는 예비아버지들의 모임을 만들거나 아기 돌보기에 관한 프로그램에 참가하도록 하여 새로운 아버지로서의 역할에 적응하는 것을 도울 수 있다고 본다.

육아가 개인의 문제라는 이유만으로 부부, 특히 어머니가 아이의 출생초기부터 경제적, 시간적 전담을 해야 하고, 직장 복귀이후에도 사회적인 도움을 거의 받지 못한다. 인적 관계를 이용해 타이를 하는 경우, 친가 시가 이용비율이 총 46.2%(Lee & Kang, 2002)로 조부모가 양육하는 경우 많은 장점이 있기는 하나, 이러한 타아 유형은 원해서라기보다는 대부분 다른 대안이 없어서 생기는 상황일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기업과 사회가 지원해주길 바라는 1순위도 '직장 내 타아 시설(Lee & Kang, 2002)'이다. 최근에는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여러 가지 사회적 지원책이 마련되고 있으나, 한편으로는 실제 맞벌이 부부, 직장여성의 육아에는 실제적인 도움 된다고 말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직장여성들이 체험한 '육아경험'이 무엇인지 의미의 본질을 탐색하여, 이를 바탕으로 직장여성을 심층적으로 이해하며 직장여성들을 위한 지지 간호개발에 반영할 수 있는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부산시에 거주하면서 육아를 하는 직장여성을 대상으로 Colaizzi(1978)의 현상학적 분석방법을 적용하여 육아경험의 의미를 분석하여 6개의 범주가 확인되었다. 그 결과는 '육아 자체의 힘듦', '역할을 다

하지 못하는 미안함', '고달픈 이중생활', '잃어버린 나' '부모 자리를 깨달아 감', '사회적 지지를 갈망함'이다.

직장여성들은 자신이 선택한 직업을 성공적으로 해나가기 위해 충분히 동기화되어 있다. 그러나 기존 전업주부인 어머니와 비교하여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지는 않는가를 걱정하며, 분만 휴가 후 복직 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경험한다. 막상 직장에 복귀하면서 육아를 도와줄 사회적 배려가 없는 것과, 맞벌이의 특성상 직장과 육아를 병행해야 하는 팍팍한 생활, 체력적으로 한계를 느끼는 것에 대해 당혹감을 느낀다. 직장생활과 육아를 병행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육체적, 정신적 부담감을 갖게 된다. 하지만 원하는 직장생활 즉 자아실현을 하는 즐거움에 감사하며, 아이를 낳고 키우면서 전업주부인 어머니들처럼 부모가 되어간다는 뿌듯함을 갖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본연구결과가 갖는 간호학적 의의는 직장여성들의 육아경험을 이해함으로써 이들을 위한 제도적, 정서적 지지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1) 직장여성들을 위한 상담창구와 지지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한다. 2) 직장여성들을 위한 별도의 교육프로그램이 구축되어야 한다. 3) 전업주부와 직장여성들이 겪는 문제점들을 비교분석하여 직장여성만이 지니는 특유의 문제점을 재조명해보는 추후 연구가 필요하다.

References

- An, S. C. (1979). A study on the parental attitude in bringing up their children chiefly on the education in infancy. *Thesis Collection of Taegu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15, 63-92
- Cho, H. K. (1996). *The work load, health, and coping strategy of married female production workers in Taegu*.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Kyunghui University, Seoul.
- Colaizzi, P. F. (1978). *Psychological research as the phenomenological views it existential phenomenological alternative for psychology*.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48-71.
- Crnic, K. A., & Greenberg, M. T. (1990). Minor parenting stress with young children. *Child Dev*, 61, 1628- 1637.
- Guba, E. G., & Lincoln, Y. S. (1989). *Effective evaluations* (4th ed.). San Francisco: Jossey-Bass.
- Jung, Y. K. (2006). A study of sense of balance in work-family and the availability/demand of support of married working women. *J Korean Home Manage Assoc*, 24(2), 107-118
- Kim, H. W. (1997). Social support: Are there gender differences?. *Korean J Soc Pers Psychol*, 11(1), 23-40.
- Korean National Statistical Office (2002). *Attitudes to woman's employment*.
- Korean Wome's Development Institute Report (2000).
- Korean Wome's Development Institute (1992). *2nd Survey on women's employment*.
- Korean Wome's Development Institute (1996). *A study on diversity Plan in child care service supported by employer*.
- Lee, J. S., & Mutochasi, T. (2001). An analysis of the factors connected with consciousness of parenting and child-rearing stress in the parents of preschool children - The point of womens' working and personal orientation-. *Stud Educ Young Child*, 5(2), 89-110
- Lee, S. H., & Kang, S. H. (2002). A study on child day care and job satisfaction of married women employed outside home. *J Korean Home Manag Assoc*, 5(2). 89-110.
- Park, M. J. (1997). A critical analysis on the working women welfare policy centered on the equality of the sexes in law. *Epistemology Res*, 9, 191-212.
- Shin, K. L., Jo, M. O., Yang, J. H. (2001). *Qualitative research methodology*. Seoul: Ewha Womans University Press.
- Yoon, O. R. (2004). Economic Development and Economic Position of women's Labor. *J Asian Women*, 43(1), 237-267.